

전자증명... 신용결제... B2B거래... 블록체인에 빠진 금융

시간·비용은 줄고 효율성 높아 핀테크 확산 등에 관련 사업 박차 기존 기술과 연계·보안 등은 숙제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금융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 주체들간의 검증 등 절차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거란 기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업계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우리은행 및 통신3사와 블록체인 전자증명 협약을 맺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위증명을 통해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직증명서, 정책자금 수령자격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제증명서 간편제출 서비스'를 검토중이다.

〈국내 금융권 블록체인 도입 현황〉

(자료=각 사 보도자료)

분야	기업	주요 내용
국내외 송금	우리은행	SBI리플 아시아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도입
	기업은행	'코빗'과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공동개발('16.3)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R3CEV참여 해외 18개 은행과 국제자금이체 시스템 구축('18)
	신한은행	'스트리미'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제휴('16.7) VISA B2Bconnect 가입, 블록체인 기반 B2B 송금 지원
가상화폐	KB국민은행	KT와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 사업화 추진
	우리은행	가상화폐 '위비' 코인 기반 결제서비스 제공('18)
보험	교보생명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범운영('17.11)
	금투협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Chain ID) 실시('17.11)
인증/AML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18.7)
	KB국민은행	코인플러그에 15억원 투자, 인증 및 송금 서비스 PoC완료('17) KB국민카드, 블록체인 활용 간편 개인인증 시스템 도입 ('16.10)
	신한은행	골드바거레시 블록체인 활용한 구매 교환증과 보증서 발급('16.8) 그룹 통합인증서비스 개발('18.1)
	KB카드, 롯데카드	간편인증, 간편로그인에 블록체인 적용
기타	신한은행	이자율 스왑거래결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시스템 개발
	KEB하나은행	국경 간 송금 및 결제를 위한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는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향후에도 관련 사업분야를 확대해 광범위한 인증 및 결제, 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전망이다.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본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산업을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가장 적합한 산업은 금융서비스 및 의료분야이며 세계적으로 금융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거래 주체들간의 데이터 상호교환과 검증 등의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핀테크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금융사가 비용절감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자체적인 암호화폐 코인 발행·공동인증·국경간 결제 등 일부는 상용화 단계까지 진척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업간(B2B)·국경간 결제 분야가 블록체인을 통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가장 적합한 영역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블록체인 버블을 넘어 상용화의 시대로’ 보고서를 통해 “거래자 간의 절차가 복잡하고 중개자 간 신뢰가 중요한 다자간 금융거래 및 교역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며 “블록체인으로 결

제 참여자간의 거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고, 실시간 감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수료 비용 절감과 결제 소요 시간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술·제도적 한계는 향후 과제

다만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와 법적 제도의 미흡함에 따른 상충 요소는 향후 금융업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란 지적이다.

김남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와 확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내 분산원장기술을 실제 금융거래에 도입했을 시 기존 기술과의 연계, 보안, 관리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를 검증·도입·확대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적 요인 외에도 블록체인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영역과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줄 왼쪽 네번째)이 16일 '신한은행·IT특성화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 및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銀, IT특성화고와 손잡고 '인재 양성'

신한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10개 IT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학협력은 IT 분야 인재 조기 육성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신한은

행 임직원과 특성화고 학생 및 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변화된 디지털 시대에 맞춰 태블릿 PC를 이용한 협약서 서명과 QR코드 이벤트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진행장은 협약식에서 “학생들은 IT 특성화고의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신한은행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해 달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카드, 600만 자영업자 대상 CB사업 진출

〈신용평가〉

KCB와 신용평가사업 협업 MOU 자영업자 상환능력 평가 향상 기대

신한카드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손잡고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데이터 기반으로 600만 개인사업자 대상 전문 신용평가(CB·Credit Bureau)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신한카드는 KCB와 신용평가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김용봉 KCB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시장 개척 및 혁신 상품 개발을 위해 양사 역량 및 인프라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등급, 매출추정모형 등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을 위한 차별된 모형을 개발해 상품을 출시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등급 정보의 판매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용평가사업은 신한카드까지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파인에비뉴에서 가진 협약식에서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왼쪽)이 김용봉 KCB 부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신한카드

난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됨에 따라 금융사 중 단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연내에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가맹점 매출규모 및 휴폐업 정보뿐만 아니라 가맹점·지역상권 성장성 등의 미래가치 분석을 통해 기존 신용평가로는 미흡했던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자금 확대, 금리인하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개인사업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가 기

대된다. 더불어 대출자격, 금리정책 등 자영업자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CB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인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 대표 서비스인 '케이-스코어(K-Score)'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대표 신용등급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분야에서 다년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및 공공기관과 진행한 공동연구 경력 등 차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휴를 통한 신한카드와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KCB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취지에 걸맞은 소비자 편익이 큰 신용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혁신금융 선도와 신한카드의 뉴비전전략과 연계한 차별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주택청약 신규가입 777명에 '경품'

KB국민은행 '7·7·7' 비대면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7·7·7' 비대면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과 KB스타뱅킹, 리브톡톡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1981~2000년생(20세~39세) 고객 777명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쿠폰 1매를 경품으로 지

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현재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1.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환전도 페이코로”... ‘환전지갑’ 서비스

NHN페이코 KEB하나은행과 제휴

간편금융플랫폼 기업 NHN페이코는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페이코 환전지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 환전지갑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외화를 환전 신청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요 외화

인 달러(USD), 엔화(JPY), 유로(EUR)를 비롯해 뉴질랜드(NZD), 스위스(CHF), 싱가포르(SGD), 영국(GBP), 중국(CNY), 캐나다(CAD), 태국(THB), 호주(AUD), 홍콩(HKD) 등 총 12종의 외화를 취급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페이코에 등록된 모든 계좌를 이용해 필요한 외환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희망수령일에 인천국제공항지점과 환전소를 포함한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실물 통화를 수령할 수 있다. 당일도 가능하다.

페이코 환전지갑은 환전해서 매입한 외국 통화를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 기능도 마련했다. 특히 ‘목표환율 설정’ 기능을 제공해 본인이 원하는 환율에 도달하는 시점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